

강진군 '사의재 저잣거리' 정문 누각 상량식

다산 4년 거주했던 주막 관광명소화 사업 본격화 내년까지 한옥·찾집 등 조성

강진 사의재(四宜齋)는 서학을 믿었다는 이유로 유배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내려와 처음 자리잡았던 곳이다. 유배 왔던 다산에게 주막의 주모는 선뜻 방을 내줘 이곳에서 4년을 머물렀다. 사의재는 '네 가지를 따르며 해야 할 방'이란 뜻으로, 다산이 꼽은 네 가지는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이었다.

사의재를 중심으로 강진을 일대를 관광 명소로 가꾸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강진군은 최근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조감도)에 따라 조성중인 '사의재 저잣거리'의 정문 역할을 할 누각 상량식을 열었다. 사의재 저잣거리(1200㎡)에는 한옥체험관을 비롯, 청년창업가와 전통 공예가들이 운영하는 점포와 동문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용 한옥 등 10개 한옥시설이 내년 2월까지 들어선다.

강진군은 2006년 사의재 복원에 들어가 2009년 사의재와 주변 주막을 복원하는



등 사의재 명소화 사업을 추진중으로, 9개 방을 갖춘 한옥체험관은 이미 손님들을 맞고 있다.

강진군은 또 다산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강학당과 비슷한 교육공간, 동문샘 공원, 다산찾집, 다산 융복합 전시홍보관 등을 내년 말까지 만들어 저잣거리를 포함한 '사의재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강진군은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강진의 대표적 볼거리와 연계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사의재 관광명소화 사업에 시장복합형 문화공간인 오감통 음악장작소, 다산청림수련원, 민간미술관, 강진만생태공원, 탐진동성리프로젝트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마련, 강진 활성화를 위한 테마자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했다. 강진군은 도비와 군비 뿐 아니라 ▲지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2층 누각 상량식이 최근 강진에서 열렸다. 상량식(上樑式)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 위에 보를 얹고 지붕틀을 꾸민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이다. 위는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 조감도 <강진군 제공>

자체 한옥건축지원사업(국도부·2억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6억50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농림축산부· 4억7000만원) 등 41억원의 국비를 따냈다.

강진군 관계자는 "다산 실학사상의 모태인 사의재는 강진읍내권 관광의 핵심자원으로 세계모란공원, 영랑생가, 강진오감동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읍내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마량항의 저물어 가는 정유년 정유년(丁酉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28일 저녁 노을이 지면서 강진군 마량항 일대가 붉게 물들었다. 마량항은 놀토 수산시장이 열리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남도는 브랜드시책으로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강진군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여수시가, 우수상은 완도군과 영광군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 단체는 주민참여숲 부문에 순천지봉로지키팀이 영광 산하치마을, 숲 돌보미 부문에 목포 삼학도보전회와 푸른고흥21협의회, 시군협의회 부문에 보성군·화순군·장흥군 협의회가 선정됐다.

강진군은 다산초당과 강진만 갈대숲 등

강진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대상

구실잣밤나무 가로수길 등 호평...최우수상 여수시

역사문화자원과 우수한 해안경관의 특징을 살려 강진만 자전거 도로 3.27km 구간을 구실잣밤나무로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오는 2020년 문을 여는 지방정원 다산원의 연계로 휴양·관광·레저 자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전라선 폐선부지에 지역 향토기업과 함께 숲을 조성해 생활공간을 재창조했다. 완도군은 지역 특화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해 지역 관문 가로경관을 조성했고, 영광군은 서해안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정금나무의 노지 재배 기반

을 구축하고 지역 주조업체와의 R&D 협업을 산업화 기반을 다졌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1157만 그루의 나무와 1110만 그루의 꽃을 심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노후된 관광지 등 기존 공간을 숲으로 재생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숲속의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내년 1월말께 '2018 숲속의 전남 만들기 다짐대회'에서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군 공무원노조 '베스트·워스트 간부' 설문 "청렴도 높이기" "인기주의 발상" 논란

'달고 싶은 상사', '밑상 간부'를 뽑습니다.

장흥군 공무원노조가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베스트'(best), '워스트'(worst) 상사를 뽑았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361명을 대상으로 군 산하 5급 이상 실·과 소장 29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가내용은 ▲리더쉽과 조직화합 ▲전문성과 책임감 ▲정립성과 도덕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베스트·워스트 간부 공무원을 선정했다.

'베스트' 부문은 적절한 동기를 부여, 조직원을 잘 이끌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십이 뛰어난 간부(2명),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압력에도 소신행정을 펼치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상사(2명),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며 자랑스럽고 청렴

한 간부(2명)로 구분했다.

리더쉽, 전문성, 청렴성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1위에 뽑힌 간부에는 방해권(58) 주민복지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는 권위적으로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업무를 아래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워스트 공무원도 3명을 뽑았지만 비공개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단합 분위기를 해치고 아래 직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기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장일 장흥군 노조위원장장은 "장흥군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권위주의에 젖어있다는 여론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전남 친환경농업대상' 수상

영암군이 '2017 전남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 친환경농업대상은 전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창의적인 재배를 통해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와 재배·생산, 가공·유통, 친환경축산 분야 농업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에서 열린다.

영암군은 유기농 인증 면적이 1099ha로 지난해(554ha)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4억6400만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판촉 지원, 420t의 다도 학교급식 등 판로 개척 추진 성과

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대상 수상금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우수상은 해남군이, 우수상은 장흥군과 진도군이 각각 수상한다.

해남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4797ha로 인증목표를 110% 달성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장흥군과 진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자체 사업 지원과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유기질비료 공급 등 시책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입어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 2502ha(유기농 7869ha, 무농약 3만4633ha)로 2016년보다 5090ha가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영암서 열린다

'2018년 항공레저 스포츠제전'이 영암에서 열린다.

영암군은 28일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열고 있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2018년 개최지로 영암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공레저 스포츠제전'은 전문항공협회 주관으로 내년 10월 영암천 인근 영암이착륙장과 농업기술센터 일대에서 이틀간 열린다.

스포츠제전은 드론레이싱·패러글라이딩·스카이다이빙·경비행기 등 6개 분야에서 16개의 장관상이 걸린 장관배 대회와 F16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관련 VR 시뮬레이터체험, 모형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전시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비행 등도 펼쳐진다.

/영암=전봉현기자 jbh@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